



■ 금주 연구원 주요 일정

- 3월 4일(화) : 사무국 주간회의
- 3월 8일(토) : 회원의 날 사전 답사

■ 연구원 소식

- 신규 회원 안내

이번 주에도 새로운 식구가 연구원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한현탁 님과 김태영 님이 그 주인공이십니다. 정경명이사님의 추천으로 연구원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 모두 용인시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한현탁 회원은 용인에서 자동기계 제작 사업체를 운영중이시며 김태영 회원은 수원에서 변호사로 활동중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식구들이 늘어가는 용인 성악회 회원들과 아름다운 인연이어가며 연구원의 든든한 식구로 자리매김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연구원 회원의 날 안내

3월 29일(토)~ 30일(일), 이틀에 걸쳐 연구원 회원의 날이 열립니다. 앞서 안내 드린 것처럼 앞으로 회원의 날은 개원기념식과 분리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5년 회원의 날은 그간 회원의 날에서 부족한 부분으로 평가되었던 숙소와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충남 공주에 자리한 계룡산에서 개최됩니다. 회원의 날 장소는 동학산장호텔(<http://www.dhsanjang.co.kr/>)로 참가하시는 모든 회원이 편안한 숙소가 제공될 것입니다.

회원의 날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언제라도 연구원 메신저나 유무선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행사개요

- 참가대상 : 연구원 회원 및 동반자
- 일 정 : 2025. 03. 29(토) ~ 03. 30(일)
- 장 소 : 계룡산 동학산장
- 행사문의 :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사무국(063-286-3005)

2. 목 표

- 한국고전문화연구원 회원은 사업의 경과와 전망 이해
- 한국고전문화연구원은 특강을 통한 회원 자기개발 지원
- 전체 구성원의 연대와 소속감 증진
- 평의원회 개최를 통한 조직 체계 개편

3. 행사일정

날 짜	시 간	내 용	비 고
1일차 03. 29 (土)	~ 14:30	출발 ---> 동학산장호텔	자율 개별 출발
	15:00 ~ 16:00	평의원회, 등록 및 숙소 배정	평의원회 사전 개최
	16:00 ~ 16:30	회원의 날 기념식	
	16:30 ~ 17:30	특강 (명리학으로 보는 삶)	나종화 작가
	17:30 ~ 18:30	경품 추첨	
	18:30 ~ 20:30	저녁 식사	
	20:30 ~	자유시간	
2일차 03.30 (日)	08:00 ~ 09:00	아침 식사	
	09:00 ~ 10:30	동학사 단체 탐방	
	10:30 ~	귀가	

■ 역사 속의 오늘

별장의 담을 허물다 - 2003. 3. 6.

대청호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동구,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청주시 사이에 건설된 복합형 댐에 의해 형성된 인공호수이다. 대청호는 한국수자원공사가 14억 9000만㎡의 저수량을 대전광역시 · 청주 · 군산 · 전주 등지에 생활 및 공업 용수로 공급하는 대규모 인공호수이다. 대청호는 저수량 기준으로 소양호와 충주호에 이어 세 번째로 규모가 큰 호수이다. 울창한 산림으로 둘러싸인 주위의 높은 산, 깊은 계곡과 함께 수려한 경관을 뽐낸다.

대청호에서 가장 중요한 관광지는 청남대일 것이다. 청남대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청댐 부근 1,844,843㎡의 면적에 지어진 대통령 전용 별장으로 '따뜻한 남쪽의 청와대'라는 의미이다. 1980년 대청댐 준공식에 참석한 전두환은 주변 경관에 매료되어 대통령 별장 건축을 지시한다.

1983년 6월 착공, 6개월만인 12월에 완공하였다. 대통령 별장이니 만큼 국가 1급 경호시설로 청와대에서 관리하고 4종의 경계철책과 경호실338경비대가 경비를 수행하여 베일에 싸여 있었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도 여전히 베일에 쌓여있던 청남대는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면서 권력을 지양하는 모순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3월 6일 청남대를 시민에게 돌려주었다.

구중궁궐에 다름없던 대통령 별장 청남대의 담을 허물고 시민에게 돌려줬던 노무현 대통령의 약력판은 의도적(?) 삭제와 탈자가 범벅인채 벽에 전시되었다가 누리꾼의 항의와 언론보도로 2014년 11월에서야 정정되었다.

2003년 4월 18일 청남대의 소유권이 충북도에 이양되면서 그해 8월 15일까지 무료 개방하고 이튿날인 16일부터 유료 입장을 시작한 후로 하루 평균 2,243명이 다녀가며 약 21년 10개월여 만안 2025년 2월 누적 관람객 1,500만을 돌파했다.